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3호 HYUNBULNEWS.COM 2026년 9월 9일(음력 7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진우 스님 당선

9월 3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선거인단 321명 전원 투표
진우 스님 183표 받고 당선
경우 스님 138표…무효표 0
조계사 참배…당선 소감 발표
"새로운 100년 열 것" 다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은호 기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321명 전원이 투표에 참가해 기호 1번 경우 스님 138표, 기호 3번 진우 스님 183표를 얻어 진우 스님이 당선됐다. 무효표는 없다. 이로써 진우 스님은 제37대 총무원장에 이어 제38대 총무원장에 연임하게 됐다. 총무원장 재임은 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 이후 13년 만이다.

이번 선거는 종단의 '변화'와 '안정' 가운데 선거인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오후 1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스님의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다"는 선포로 투표가 시작됐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과 총무원장 후보 경우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이 차례로 투표했으며, 이후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투표는 오후 2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선거인단은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지켜봤으며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후 3시께 개표가 마무리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스님은 "진우 스님의 당선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당선 발표와 함께 장내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태성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은 진우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지해 준 스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어 선대위 소속 스님들과 함께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께 헌향하고 삼배를 올렸다.


당선증 교부 직후 조계사로 이동한 진우 스님이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후 당선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임은호 기자

참배 직후 진우 스님은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들, 선거인단을 포함한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오늘의 선택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준엄한 뜻으로 받들겠다"며 "선거 과정에서의 모든 인연과 의견을 소중히 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구와 함께,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종단의 미래를 열기 위해 공의를 모으고, 공감으로 하나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다"며 "승가는 더욱 당당하게, 종단은 더욱 안정되게, 불교는 더욱 젊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앞서 '공의·공감·공심'을 바탕으로 한 △교구 활성화 △선거제도 개선 및 비구니 위상 강화 △승려복지 완전 실행 △종단 재정 안정적 확보 △전통선과 선명상 대중화 △대사회 자비행 실천 강화 △시대와 함께하는 전법·포교 △K-불교문화 진흥 △도제양성 대혁신 △사찰 공익 가치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몽성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담양 용흥사 주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등을 지냈다. 또 조계종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총무원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제8대 교육원장, 불교신문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진우 스님은 9월 4일 원로회의 인준을 거친 후 9월 28일부터 4년간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한편 총무원장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여야 한다. 종헌에 따라 종단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총괄하며, 해인사·통도사·송광사 등 전국 25개 교구본사를 비롯한 3000여 개 사찰을 종헌·종법에 따라 관리한다.

또 총무원 종무원과 각 사찰의 주지 임면권을 비롯해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고 그 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특별분담사찰과 직영사찰 등 주요 사찰의 예산 승인 및 조정 권한도 행사한다.

대외적으로는 학교법인 중앙승가대의 당연직 이사장을 비롯해 불교 주요 종단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당연직 회장, 한국 7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을 맡는다.

현장 영상 바로가기

울산 도심서 펼쳐지는 선명상·미디어아트 향연

9월 18~20일, '선명상축제-울산'
복합문화공간 만디 일원서 열려

도심 한복판 복합문화공간에서 미디어아트와 자연, 시(詩)와 선(禪)이 어우러진 특별한 선명상축제가 펼쳐진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조계종 미래본부와 (사)태화복합문화공간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선명상축제-울산'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와 백양사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4월 서울 봉은사에서 시작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2026 선명상축제'의 일곱 번째 행사다.

축제는 금강 스님의 '선명상의 노래'로 시작된다. 한국 전통 간화선의 가르침과 참선 수행에서 얻은 통찰을 현대인의 일상 언어로 풀어낸 짧은 글을 나누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울산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만디의 미디어아트 전시홀 '라이트룸'에서 진행되는 '오감 빛 선명상'이다. 빛과 소리, 향, 호흡을 결합한 몰입형 명상 프로그램으로, 탄호 스님이 강의를 맡는다. 싱잉볼의 공명음과 아로마 향을 활용해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에 집중하도록 구성해 명상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무료로 총 2회 운영된다.

숲과 사찰의 자연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백양사와 함월산 일대에서 열리는 '함월산 걷기명상'은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발걸음과 호흡, 주변의 자연 감각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2회 운영된다.

축제 기간 만디 1층 로비에서는 2026 선명상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마음처방전'이 상시 운영된다. 참가자의 성향과 일상의 고민에 대해 맞춤 명상법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9월 19일 저녁 루프탑에서는 '선명상 음악회'도 열린다. 해질녘 노을을 배경으로 재즈 기타리스트 김대호·박혜지, 테너 이지윤이 무대에 올라 재즈와 성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인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선명상의 노래를 비롯해 미디어아트, 걷기명상 등 복합문화공간인 만디이기에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선명상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평안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 선명상축제-울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불교중흥의 도약을 완성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전에 정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종정 예하, 원로 대덕 큰스님들을 비롯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 저는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제 당선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종단 발전의 도약을 완성하라는 종도들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적수성연(積水成淵), 적은 양의 물이 쌓이면 큰 못을 이룹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종도 여러분께서 전하신 혜안의 고견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종도들의 여망을 담아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종단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떠한 파고(波高)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4년이 종단의 안정된 바탕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안정된 바탕 위에서 도약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70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는 전 세계인이 동경하는 K-문화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불교문화의 진흥을 통해 세계인이 한국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전통선으로 이어지는 선명상이 국민의 마음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한국불교가 세계 정신문명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종단 행정을 책임지는 소임자로서 청정한 화엄(華嚴)의 수행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를 위해 함께해온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스님 및 지도위원 스님들 이하 모든 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선의의 종책 경쟁을 펼치신 경우스님과 정념스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스님께서 제안한 좋은 종책들은 잘 반영해 실행하겠습니다.

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 종단의 원융화합을 통해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완성하는 불교중흥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합장